

우리나라의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오 세 훈(Se-Hoon Oh)*

이 두 영(Too-Young Lee)**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학술지를 정보관리학회지로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기간은 1984-2004년(창간호-제21권 제3호)이다. 조사 대상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정보학의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연구 논문 302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3,270편과 타 학문분야 문헌 2,492편의 주제 및 연령을 각각 조사,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trend of research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subject of each citing and cited articles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original articles appeared in the journal from 1984 to 2004 were analyzed. 3,270 foreign literatur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being cited in the original articles and those 2,492 cited foreign literatures of other field the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analyzed by subject, by publication year, and by citing age.

키워드: 정보학 연구 동향, 인용 분석, 정보학 연구전선, 이용자 행태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citation analysis

* 광운대학교 도서관 사서(atom@kw.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eety0521@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3월 5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과 이론을 형성하여 발전하면서 일정 기간까지 수행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성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해당 학문의 지배적인 관점과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당면한 쟁점과 과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학문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과학사 및 철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문 활동의 주체인 연구자집단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인 연구 동향을 규명하면서, 이들이 학문 활동 과정에 어떠한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해당 학문의 학문적 구조와 성격을 정의한다.

이렇듯 학문의 연구 동향 규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최달현, 이영자 1988; 사공철, 박성민 1994; 서은경 1997),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이나 타 학문분야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

석하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연령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조사, 분석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 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은 1984년 『정보관리학회지』가 발간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을 정보관리학회지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 정보학분야 연구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1984년부터 2004년(창간호-제21권 제3호)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하였다.

조사 대상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502편 가운데 <표 2>에 제시된 정보학 영역에 해당되는 연구 논문 302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02편의 연구 대상 논문에 인용된 6,795편의 문헌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 문헌 1,033편을 제외한 5,762편의 문헌에 대한 주제 및 연령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0을 사용하여

1) 문헌의 연령은 인용한 문헌의 간행년도에서 인용된 문헌의 간행년도를 뺀 수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²⁾를 설정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학의 주제 영역을 규명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주제 및 5년 간격의 간행 시기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주제 및 5년 간격의 연령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인용된 타 학문분야 문헌을 주제 및 5년 간격의 연령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정보학의 핵심 및 하위 주제 설정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학의 핵심 주제와 하위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설정하고, 정보학을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설정한 다음 정보

학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와 특정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2.1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의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을 밝히기 위해 다수 적용했던 외국의 문헌정보학 주제 분석 도구와 최근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 주제 분석 도구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Feehan 등(1987)은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일반 분야, 전문직 분야, 이론 분야, 응용 분야, 관련 분야 등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구성하는 24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구분은 문헌정보학 연구가 이론적 속성이 강한지 혹은 응용적 속성이 강한지 아니면 타 학문분야에 대한 주제 의존도가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써 Harter와 Hooten(1992), 사공철과 박성민(1994), Kajberg(1996) 등이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Järvelin과 Vakkari(1990)는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전문직, 도서관 역사, 출판(圖書史

2)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문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를 학문 영역이라고 하고, 특정 학문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를 핵심 주제라고 하며, 특정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위 주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층 구조는 학문 영역, 핵심 주제, 하위 주제이다.

포함),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 방법론, 분석,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정보 축적 및 검색, 정보 추구 행위,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이용 연구, 문헌정보학의 기타 측면 등 11개의 영역과 23개의 핵심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Feehan 등이 제시한 구분보다 광범위하고, 특히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 개발을 위하여 정보의 역할과 정보 업무의 효율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Järvelin과 Vakkari의 주제 구분 체계는 Kumpulainen(1991), 정동열(1993), 조찬식(1999), Yontar와 Yalvac(2000), 정진식(2001), 이명희(2002), 정동열과 김성진(2003) 등이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Kajberg(1996)는 1957-1986년 기간 중에 덴마크에서 발행된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Feehan 등이 제시한 학문 영역 구분을 기초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일반을 비롯하여 전문직 관련, 이론적, 응용, 문헌정보학이외의 관련 분야, 기타: 구분하기 불가능한 잡서 등 6개의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33개의 핵심 주제로 구분하였다.

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ISA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에서는 정보학을 크게 정보학 일반, 연구 방법론, 정보 생성, 정보의 인식, 정보 처리, 정보 시스템 및 응용, 정보 관리 등 7개의 핵심 주제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다시 하위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Rubin 2000). 이러한 주제 분석 체계는 서은경(1997), 정진식(2001)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어 그들의 연구에 적용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

역 구분도 외국의 학문 영역 구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상(1998)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지식 체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0집(1970-1996년)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도서관학 논집』 1-23집(1974-1995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주제 키워드를 추출한 후에 이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장서 개발, 분류, 색인, 목록, 검색, 학위 논문 관리, 정보(참고)봉사, 도서관 체제,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운영(경영, 조직), 문헌정보학 체계, 사서 연구, 도서관사, 문헌학, 도서관 협력, 기타 연구 등 16개로 구분하고, 각 영역 아래 핵심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희곤(2000)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 나타난 공통 영역 및 주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와 학문의 발전 추이를 고려한 주제를 포함하여 26개의 문헌정보학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정진식(2001)은 문헌정보학의 영역 구분을 위해 Järvelin과 Vakkari가 제시한 학문 영역과 정보학 분야의 ISA를 참고하여 자료 조직, 도서관 경영 관리, 정보 서비스, 문헌정보학 일반, 연구 방법론, 정보 생성, 정보 인식, 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서지학 등 10개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설정하였고, 그 영역을 다시 41개의 핵심 주제로 구분하였다.

정동열과 김성진(2003)은 Järvelin과 Vakkari의 문헌정보학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구분을 토대로 주제 간에 차별성 문제가 있는 부분과 애매한 부분, 그리고 국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문헌정보학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일반/정보 이론/개념, 전문직, 도서관사, 출판/저작권, 문헌정보학 교육/도서관 교육/독서 지도, 연구 방법론, 정보 자원 관리/장서 관리/개발,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이용자 연구, 도서관 경영/행정, 도서관 정보 정책/도서관 평가/정보 사회 경제, 정보 네트워크/협력 체제/유통, 분류/목록, 색인/초록, 정보 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정보 탐색 과정/탐색 평가, 자동화/디지털 도서관, 인터넷 자원/전자 정보/멀티미디어, 계량정보학, 기록 관리학, 서지학, 기타 등의 22개의 핵심 주제로 구분하였다.

손정표(2004)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학문 영역과 DDC 20판의 체계 및 각 학문 영역별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문헌정보학을 8개의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75개의 핵심 주제와 124개의 하위 주제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기에는 도서관 경영, 참고 봉사, 독서 지도, 편목, 분류 등과 같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에 관련된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학 일반, 정보 유통, 계량정보학, 이용 연구, 정보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 등과 같은 정보학 영역에

관련된 주제와 서지학, 도서 및 출판학 등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상술한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외에 교육, 윤리, 전문직 단체, 사서직이 포함된 전문성과 각종 도서관 관련 법령, 저작권법 및 기준이 포함된 도서관 법령 및 기준, 도서관 역사, 홍보 및 마케팅, 문헌정보학의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론 및 이용자의 정보 추구 행태나 인식 등에 관한 이용자 연구, 인용 분석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계량정보학과 전문가시스템(컴퓨터시스템) 등에 관한 주제들이 추가 되어 문헌정보학의 핵심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문헌정보학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구분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과 관련한 주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정보학과 관련된 주제는 정보 이론, 계량정보학, 이용 연구, 도서관 자동화와 같은 정보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인공 지능, 패턴 인식, 정보 기술,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설계 및 구축,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디지털도서관 등의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록 관리학이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구분은 연구자들의 관점, 대상, 목적,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문헌정보학의 발전 과정이나 핵심 주제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완성형적인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설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 비교표

학문영역 및 핵심주제	연구자	Feehan (1987)	Järvelin (1990)	Kajberg (1996)	ISA	이수상 (1998)	최희곤 (2000)	정진식 (2001)	정동열 김성진 (2003)	손정표 (2003)
문헌정보학 일반		○		○	○	○	○	○	○	○
이론/철학				○		○				○
연구			○	○	○	○	○	○	○	○
도서관과 사회				○	○		○	○	○	○
전문성(교육/단체/사서)		○	○	○	○	○	○	○	○	○
법령/기준		○		○	○	○	○	○	○	○
도서관 역사		○	○	○		○	○		○	○
도서관 체제						○				
도서관 및 정보 정책				○		○		○	○	
도서관 사정/실태 조사				○	○	○				○
도서관 협동/자원 공유			○	○	○	○		○	○	○
도서관 유형				○	○	○		○		○
도서관 건물 및 설비			○	○						○
도서관 건축				○						○
설비/장치				○						○
도서관 운용		○		○	○	○	○		○	○
도서관 기획/활성화			○	○	○	○				○
조직관리				○		○				○
경영 관리				○	○	○		○		○
인사 관리										○
재정 관리				○						○
도서관 평가		○	○				○		○	○
장서 개발/관리			○	○	○	○	○	○	○	○
자료의 유형(정보원)		○		○	○		○	○	○	○
홍보/마케팅				○	○	○				○
정보 봉사			○	○	○	○		○	○	○
열람/대출 봉사			○	○	○			○		○
참고 봉사		○	○	○		○	○	○		○
전자 정보 서비스				○				○		○
초록/색인/번역 봉사						○		○		
특수/장애인 봉사				○		○				○
이용자 교육			○	○	○	○			○	○
독서 교육/지도/치료		○		○		○	○		○	○
봉사 효율성 평가						○		○		○
자료 조직		○						○		○
서지 통정				○		○				
편목		○	○	○		○	○	○	○	○
분류		○	○	○	○	○	○	○	○	○
주제 분석			○	○	○	○	○	○	○	○
정보학				○	○					○
정보학 일반		○		○	○					○
정보 이론				○			○		○	○
정보 유통		○	○		○	○		○	○	○
계량정보학		○	○		○	○	○	○	○	○

이용 연구	○	○	○	○	○	○	○	○	○
정보 축적/데이터베이스	○	○		○	○		○	○	○
정보 검색	○	○	○	○	○	○	○	○	○
정보 기술			○	○	○		○	○	○
전문가시스템(컴퓨터시스템)				○	○			○	○
도서관 자동화	○	○	○	○	○	○		○	○
디지털도서관							○	○	○
컴퓨터네트워크				○				○	○
인터넷						○		○	
서지학	○		○		○	○	○	○	○
각종 서지									○
주제별 서지						○			○
도서/출판학	○	○	○	○	○	○	○	○	○
도서학					○				○
출판 일반				○	○				○
전자 출판							○		
기록 관리학				○				○	○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제시된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들을 참고로 하여 문헌정보학의 발전 추이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들을 종합하고, 동일 개념이면서도 다르게 제시된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들의 명칭을 가공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체제,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 운용, 정보 봉사, 자료 조직, 정보학, 서지학, 도서 및 출판학, 기록 관리학 등 10개의 영역으로, 그 영역을 다시 57개의 핵심 주제로, 이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110개의 하위 주제로 각각 구분하여 <표 2>와 같이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을 설정하였다.

2. 2 정보학의 핵심 및 하위 주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을 10개의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영역을 다시 57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및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 가운데 정보학을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삼고,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를 정보학 일반, 정보 이론, 정보 유통, 계량정보학, 이용 연구, 정보 축적, 정보 검색, 정보 기술, 전문가시스템, 도서관 자동화, 디지털도서관,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 등 13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다시 41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이 밝힌 정보학의 핵심 주제들을 수집, 선별, 가공하였다(표 2 참조).

3.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동향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학회

〈표 2〉 문헌정보학의 주제 분석 도구

학문 영역, 핵심 주제, 하위 주제	학문 영역, 핵심 주제, 하위 주제
<p>문헌정보학 일반</p> <p>이론/철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정보학 이론 학문의 지적구조 철학/사상 <p>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일반 비교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연구 방법론 <p>도서관과 사회</p> <p>전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일반 교육 윤리/검열/지적자유 전문단체 사서직 <p>법령/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기준 일반 도서관법 저작권법 도서관 기준 <p>도서관 역사</p> <p>도서관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및 정보정책 도서관 사정/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사정 일반 실태 조사 도서관 통계/연감 도서관협동/자원공유 <p>도서관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유형 일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p>도서관 건축 및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건축 설비/장치 비 품 	<p>도서관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기획/활성화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일반 의사결정 조직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경영/지식경영 경영 기법/전략 인사관리 재정관리 도서관 평가 장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서관리 일반 장서개발/정책 수서/등록/교환/납본 폐기 장서평가 서고관리 자료의 유형별 관리 장서점검 보존/제본/수리 자료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유형 일반 단행본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고문서/귀중본 마이크로폼 멀티미디어 전자저널 웹 자원 홍보/마케팅 <p>정보 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봉사 일반 열람/대출 봉사 참고봉사 전자정보서비스 정보주지서비스(SDI) 초록/색인/번역 봉사 특수/장애인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지도/치료 봉사의 효율성 평가

<p>자료 조직</p> <p>자료 조직 일반</p> <p>서지통정</p> <p>편목</p> <p> 편목 일반</p> <p> 편목 규칙</p> <p> MARC</p> <p> 전자통제</p> <p> 온라인열람용목록(OPAC)</p> <p> 고서편목</p> <p> 웹 자원 조직(메타데이터)</p> <p> 비도서 자료조직</p> <p>분류</p> <p> 분류 일반</p> <p> 분류법</p> <p> 도서기호</p> <p> 인터넷 자원 분류</p> <p> 고서 분류</p> <p>주제 분석</p> <p> 주제 분석 일반</p> <p> 주제명표목표</p> <p> 시소러스</p> <p> 색인/초록</p> <p>정보학</p> <p>정보학 일반</p> <p>정보 이론</p> <p>정보 유통</p> <p>계량정보학</p> <p> 계량정보학 일반</p> <p> 인용분석/인용색인</p> <p> 학술 커뮤니케이션</p> <p>이용 연구</p> <p> 이용 연구 일반</p> <p> 이용자 인식/요구</p> <p> 정보이용행태</p> <p>정보축적</p> <p> 데이터베이스 일반</p> <p> 데이터 구조/설계</p> <p> 서지데이터베이스</p> <p> 하이퍼텍스트</p> <p> 원문데이터베이스</p>	<p> 검색시스템</p> <p> 검색 기법/전략</p> <p> 검색엔진</p> <p> 검색어</p> <p>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p> <p>정보기술</p> <p> 정보기술 일반</p> <p> 컴퓨터 언어</p> <p> 인공지능</p> <p> 패턴/문자인식</p> <p> 인터페이스</p> <p> 알고리즘</p> <p> 하드웨어</p> <p> 소프트웨어</p> <p> 정보 보안</p> <p>전문가시스템</p> <p> 전문가시스템 일반</p> <p> 참고전문가시스템</p> <p> 지식관리시스템</p> <p> 전문가시스템 평가</p> <p>도서관 자동화</p> <p> 자동화 일반</p> <p> 업무 자동화</p> <p> 자동색인/초록</p> <p> 자동분류</p> <p> 자동화 효율성 평가</p> <p>디지털도서관</p> <p> 컴퓨터네트워크</p> <p> 인터넷</p> <p> 인터넷 일반</p> <p> 웹 사이트 설계/구축</p> <p> 콘텐츠 개발/관리</p> <p> 웹 사이트 평가</p> <p>서지학</p> <p> 서지학 일반</p> <p> 형태서지학(판본학)</p> <p> 체계서지학(목록학)</p> <p> 각종서지</p> <p>도서/출판학</p> <p> 도서학</p>
--	--

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총 502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정보학 영역의 논문은 302편이며, 이곳에 인용된 문헌은 총 6,795편이다. 인용된

문헌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 문헌은 1,033편이고, 외국의 그것은 3,270편이며, 타 학문분야 문헌은 2,492편이다.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국내 문헌정보

학 문헌에 대한 의존도는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내의 문헌정보학 문헌 1,033편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문헌정보학분야 문헌의 주제 분석은 <표 2>를 도구로 삼고,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분석은 DDC 22판을 도구로 선정하였다.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의 복합 주제 문헌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단일 주제로 분석하였다.

3. 1 조사 대상 문헌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석

여기서는 조사 대상 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주제 및 5년 간격의 간행 시기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 동향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 대상 논문 302편을 <표 2>를 도구로 하여 그 주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1>로 작성하였으며, 이 표와 그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발표한 연구 논문은 주제 및 간행 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간행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정보학의 모든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이들이 최근 20년간 상대적으로 가장 주목한 주제는 정보 검색이다.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그 주제를 열거하면 정보 검색(18.5%), 도서관 자동화(11.9%), 인터넷(11.6%), 정보 기술(9.9%), 전문가시스템(9.3%), 정보 추적, 이용 연구(각 8.6%), 계량정보학(8.3%), 디지털도서관(4.3%), 정보학

일반, 정보 유통, 컴퓨터네트워크(각 2.3%), 정보 이론(2.0%)이다.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절반 이상(51.9%)이 4개의 주제(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 인터넷, 정보 기술)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정보학 영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일부 주제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업무 자동화에 주력하였던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도서관자동화 및 정보 검색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향상은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야기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 과정 또한 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 정보 기술, 인터넷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구본영 2003, 56-57).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인 필요성에 의해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목하는 정보학의 하위 주제는 인용 분석/인용 색인, 지식관리시스템(각 6.0%),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 자동 색인/초록(각 5.3%), 이용자 인식/요구, 검색시스템(각 5.0%), 웹 사이트 설계/구축(4.3%), 검색 엔진, 인공 지능, 웹 사이트 평가(각 3.6%), 인터페이스(3.3%) 등의 11개 하위 주제(51.0%)이다.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정보학의 하위 주제 41개 중 1/3도 되지 않는 11개 하위 주제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

〈표 3〉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

핵심 주제 / 하위 주제		간행 시기	1984-1988	1989-1993	1994-1998	1999-2004	합계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정보학 일반		1 (0.3)	2 (0.7)	2 (0.7)	2 (0.7)	7 (2.3)	
정보 이론		1 (0.3)		3 (1.0)	2 (0.7)	6 (2.0)	
정보 유통				4 (1.3)	3 (1.0)	7 (2.3)	
계 량 정보학	계 량정보학 일반	1 (0.3)				1 (0.3)	
	인용분석/인용색인	2 (0.7)	4 (1.3)	4 (1.3)	8 (2.6)	18 (6.0)	
	학술 커뮤니케이션	3 (1.0)	1 (0.3)		2 (0.7)	6 (2.0)	
	소 계	6 (2.0)	5 (1.7)	4 (1.3)	10 (3.3)	25 (8.3)	
이용 연구	이용 연구 일반			1 (0.3)	1 (0.3)	2 (0.7)	
	이용자 인식/요구	3 (1.0)	1 (0.3)	2 (0.7)	9 (3.0)	15 (5.0)	
	정보이용행태	1 (0.3)	1 (0.3)	2 (0.7)	5 (1.7)	9 (3.0)	
	소 계	4 (1.3)	2 (0.7)	5 (1.7)	15 (5.0)	26 (8.6)	
정보 축적	데이터베이스 일반		1 (0.3)	1 (0.3)		2 (0.7)	
	데이터 구조/설계	1 (0.3)	1 (0.3)	4 (1.3)	2 (0.4)	8 (2.6)	
	서지데이터베이스		2 (0.7)	1 (0.3)		3 (1.0)	
	하이퍼텍스트		3 (1.0)		1 (0.3)	4 (1.3)	
	원문 데이터베이스	1 (0.3)	3 (1.0)			4 (1.3)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평가				5 (1.7)	5 (1.7)	
소 계	2 (0.7)	10 (3.3)	6 (2.0)	8 (2.6)	26 (8.6)		
정보 검색	정보검색 일반	2 (0.7)		3 (1.0)		5 (1.7)	
	검색시스템	4 (1.3)	2 (0.7)	3 (1.0)	6 (2.0)	15 (5.0)	
	검색 기법/전략		1	3 (1.0)	4 (1.3)	8 (2.6)	
	검색 엔진			2 (0.7)	9 (3.0)	11 (3.6)	
	검색어	1 (0.3)				1 (0.3)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	3 (1.0)	2 (0.7)	3 (1.0)	8 (2.6)	16 (5.3)	
	소 계	10 (3.3)	5 (1.7)	14 (4.6)	27 (8.9)	56 (18.5)	
정보 기술	정보기술 일반						
	컴퓨터 언어				1 (0.3)	1 (0.3)	
	인공지능	1 (0.3)	5 (1.7)		5 (1.7)	11 (3.6)	
	패턴/문자인식			1 (0.3)		1 (0.3)	
	인터페이스		1 (0.3)	2 (0.7)	7 (2.3)	10 (3.3)	
	알고리즘			2 (0.7)	1 (0.3)	3 (1.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 (0.3)	3 (1.0)	4 (1.3)	
정보 보안					0 (0.0)		
소 계	1 (0.3)	6 (2.0)	6 (2.0)	17 (5.6)	30 (9.9)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시스템 일반		2 (0.7)	1 (0.3)		3 (1.0)	
	참고전문가시스템	1 (0.3)	1 (0.3)		4 (1.3)	6 (2.0)	
	지식관리시스템		1 (0.3)	3 (1.0)	14 (4.6)	18 (6.0)	
	전문가시스템 평가			1 (0.3)		1 (0.3)	
	소 계	1 (0.3)	4 (1.3)	5 (1.7)	18 (6.0)	28 (9.3)	
도서관 자동화	자동화 일반		1 (0.3)	1 (0.3)	3 (1.0)	5 (1.7)	
	업무 자동화	7 (2.3)		2 (0.7)		9 (3.0)	
	자동 색인/초록	5 (1.7)	5 (1.7)	4 (1.3)	2 (0.7)	16 (5.3)	
	자동분류	2 (0.7)			4 (1.3)	6 (2.0)	

	소 계	14 (4.6)	6 (2.0)	7 (2.3)	9 (3.0)	36 (11.9)
디지털도서관				3 (1.0)	10 (3.3)	13 (4.3)
컴퓨터네트워크		2 (0.7)	2 (0.7)	3 (1.0)		7 (2.3)
인터넷	인터넷 일반				4 (1.3)	4 (1.3)
	웹 사이트 설계/구축			1 (0.3)	12 (4.0)	13 (4.3)
	콘텐츠 개발/관리			1 (0.3)	6 (2.0)	7 (2.3)
	웹 사이트 평가			2 (0.7)	9 (3.0)	11 (3.6)
	소 계			4 (1.3)	31 (10.3)	35 (11.6)
합 계		42 (13.9)	42 (13.9)	66 (21.9)	152 (50.3)	302 (100.0)

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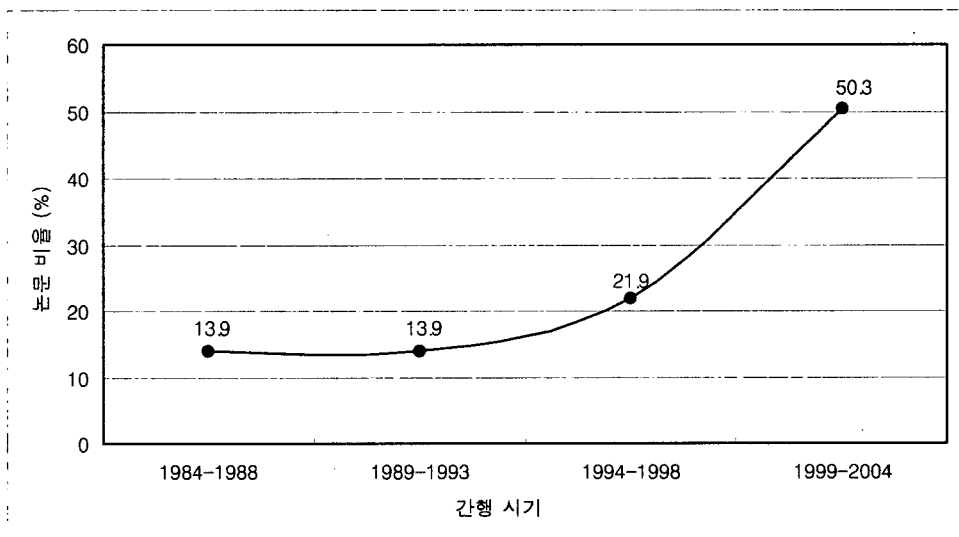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정보관리 학회지가 창간된 1984년부터 5년 간격으로 연구 논문의 생산을 계속 증가 시켰으며, 특히 1999-2004년 기간 중에 전체 연구 논문의 절반을 초과하는 양(50.3%)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즉,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생산성은 과거 15년간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기간이 20년 이

라는 제한점을 가진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과학 문헌의 생산량은 10년 혹은 15년을 주기로 2배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Price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rice, 1963).

(4)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5년간 주목한 정보학의 주제는 인터넷(10.3%), 정보 검색(8.9%), 전문가시스템(6.0%), 정보 기술(5.6%), 이용 연구(5.0%), 계량정보학, 디지털도서관(각 3.3%) 등의 순위 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이들은 정보학의 13개의 핵



<그림 1>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간행 시기별 추이

문헌정보학 일반	전문 단체	전문 단체	1		1		1						3	0.1		
		사서직	9	2	1			1						13	0.4	
		소 계	14	6	6	1	2	1	1					31	0.9	
	법령/기준	도서관법							1					1	0.0	
		저작권법	3											3	0.1	
		도서관 기준	3											3	0.1	
		소 계	6						1					7	0.2	
	도서관 역사		1	1										2	0.1	
	합 계		26	12	9	9	6	5	2	1	1		3	74	2.3	
	도서관 체계	도서관 및 정보 정책		8	2		1						1		12	0.4
도서관 사정/ 실태조사		실태 조사	2											2	0.1	
		도서관 통계/연감	2		1									3	0.1	
		소 계	4		1									5	0.2	
도서관 협동/자원 공유		20	9	7	4	1							41	1.3		
도서관 유형		도서관 유형 일반		1											1	0.0
		국가도서관		1											1	0.0
		공공도서관			2	1									3	0.1
		대학도서관												4	4	0.1
		학교도서관		3	3	2									8	0.2
	전문도서관		5	1			1							7	0.2	
소 계		10	6	3		1						4	24	0.7		
합 계		42	17	11	5	2					1	4	82	2.5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 건축		4	3										7	0.2	
	설비/장치		1											1	0.0	
	합 계		5	3										8	0.2	
도서관 운용	도서관 기획/활성화					1		1						2	0.1	
	조직 관리	조직 일반		3	3										6	0.2
		의사 결정		3											3	0.1
		조직 커뮤니케이션				1		1							2	0.1
		소 계		6	3	1		1							11	0.3
	경영 관리	도서관 경영/지식 경영		3	2										5	0.2
		경영기법/전략			1		1								2	0.1
		소 계		3	3		1								7	0.2
	도서관 평가		4	3	2	4			1						14	0.4
	장서 개발/ 관리	장서관리 일반		5	3	2	1								11	0.3
장서개발/정책		20	8	2					1				31	0.9		
수서/등록/교환/납본		12	8	1	2			1					24	0.7		
장서평가		3	6	4	2			1					16	0.5		
서고관리		1											1	0.0		
소 계		41	25	9	5		1	1		1			83	2.5		
자료의 유형	자료의 유형 일반			6	4	8	1							19	0.6	
	연속간행물		4	1			1							6	0.2	
	정부간행물			1	1									2	0.1	
	멀티미디어		2											2	0.1	
	전자저널		22	5	1									28	0.9	
	웹 자원		11	1										12	0.4	
	소 계		39	14	6	8	2							69	2.1	
홍보/마케팅		3											3	0.1		
합 계		96	48	18	19	3	2	2		1			189	5.8		
정보 봉사	정보봉사 일반		11	6	2	2						3		24	0.7	
	열람/대출 봉사		10	2	1			1						14	0.4	

정보 봉사	참고 봉사	33	8	6	4	5							56	1.7	
	전자정보서비스	14	9	2	1								26	0.8	
	정보주지서비스(SDI)	3	7	1									11	0.3	
	초록/색인/번역 봉사	1			1	1							3	0.1	
	특수/장애인 봉사				2	1							3	0.1	
	이용자 교육	6	14	7	2								29	0.9	
	독서 교육/지도/치료					2	1						3	0.1	
	봉사의 효율성 평가	8	5	7	2	1	1						24	0.7	
합 계	86	51	26	14	10	3					3	193	5.9		
자료 조직	자료조직 일반	6	7	2					1	1		1	18	0.6	
	서지 통제	2	2										4	0.1	
	편목	편목 일반	5	4	3	2				1				15	0.5
		편목 규칙	12	9	7	1	1						1	31	0.9
		MARC	4	9	3	2								18	0.6
		전자 통제	3	1	4									8	0.2
		온라인열람용목록(OPAC)	10	16	20	3								49	1.5
		웹 자원조직(메타데이터)	25	5			1		1	1				33	1.0
		비도서 자료 조직	1											1	0.0
		소 계	60	44	37	8	2		1	2			1	155	4.7
	분류	분류 일반	1		1									2	0.1
		분류법	14	15	4	9	2		1					45	1.4
		인터넷 자원 분류			1									1	0.0
		소 계	15	16	5	9	2		1					48	1.5
	주제 분석	주제분석 일반	5	4	6		1							16	0.5
		주제명표목록표	5	6	1	6								18	0.6
		시소러스	16	13	12	1			1					43	1.3
		색인/초록	12	26	11	6	6	2	4	3				70	2.1
		소 계	38	49	30	13	7	2	5	3				147	4.5
	합 계	121	118	74	30	11	2	7	6	1		2	372	11.4	
정보 학	정보학 일반	50	37	27	13	2	3		1				133	4.1	
	정보 이론	9	18	11	8	8	2	3	1				60	1.8	
	정보 유통	2	3	1	3	1	2	2			1		15	0.5	
	계 량 정보학	계량정보학 일반	1	14	9	7	4	5	2	1				43	1.3
		인용 분석/인용 색인	51	83	52	27	11	7	6	1	1	1		240	7.3
		학습 커뮤니케이션	18	14	17	25	7	4						85	2.6
		소 계	70	111	78	59	22	16	8	2	1	1		368	11.3
	이용 연구	이용연구 일반	5	2	1	1	2	1	1	1		1		15	0.5
		이용자 인식/요구	38	44	26	23	9	12	3					155	4.7
		정보이용행태	14	14	4	3	4	3	2		1			45	1.4
		소 계	57	60	31	27	15	16	6	1	1	1		215	6.6
	정보 축적	데이터베이스 일반	5	7	6	3	2	2						25	0.8
		데이터 구조/설계	8	4	8	4								24	0.7
		서지 데이터베이스	11	3		2	1	1						18	0.6
		하이퍼텍스트	25	5	1									31	0.9
		원문 데이터베이스	14	8	3									25	0.8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3	5	2									10	0.3
		데이터베이스 평가	10	4	7	2	2	1						26	0.8
	소 계	76	36	27	11	5	4						159	4.9	
	정보 검색	정보검색 일반	79	73	40	24	9	1				1		227	6.9
검색시스템		22	44	20	10	8	3	2					109	3.3	
검색 기법/전략		16	32	22	12	7	1	1					91	2.8	

정보학	검색 엔진	30	7	1	5	1							44	1.3	
	검색어	25	29	17	14	7	3	2					97	3.0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	31	35	33	25	16	13	5		2			160	4.9	
	소 계	203	220	133	90	48	21	10		2		1	728	22.3	
	정보기술 일반	5	2	2									9	0.3	
	컴퓨터 언어	4	2		2								8	0.2	
	인공 지능	26	10	11	5	1							53	1.6	
	패턴/문자 인식	3	5	1	1								10	0.3	
	인터페이스	20	13	7	7	3							50	1.5	
	알고리즘	9	9	6	5								29	0.9	
	하드웨어		2										2	0.1	
	소프트웨어	3	1	4	1								9	0.3	
	소 계	70	44	31	21	4							170	5.2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시스템 일반	22	20	3	2	1							48	1.5
		참고전문가시스템	11	3	2	3	1	1						21	0.6
	지식관리시스템	2	4	1	1	1							9	0.3	
	전문가시스템 평가			1									1	0.0	
	소 계	35	27	7	6	3	1						79	2.4	
도서관 자동화	자동화 일반	10	13	14	7	1							45	1.4	
	업무 자동화	2	3	2	2	1							10	0.3	
	자동 색인/초록	12	21	18	24	11	13	9	1	4	1		114	3.5	
	자동분류	1	3	6	5	4		1	1				21	0.6	
	자동화 효율성 평가	2	3		3	1		2					11	0.3	
	소 계	27	43	40	41	18	13	12	2	4	1		201	6.1	
	디지털도서관	42	9	1									52	1.6	
	컴퓨터 네트워크	14	17	9	2								42	1.3	
	인터넷 일반	26	17	1									44	1.3	
	웹 사이트 설계/구축	12	3										15	0.5	
	콘텐츠 개발/관리	7		1	1								9	0.3	
	웹 사이트 평가	14	2										16	0.5	
	소 계	59	22	2	1								84	2.6	
	합 계	714	647	398	282	126	78	41	7	8	4	1	2,306	70.5	
서지학	각중서지	2		1									3	0.1	
	합 계	2		1									3	0.1	
도서/출판학	출판 일반	1	10									1	12	0.4	
	전자 출판	4	4										8	0.2	
	합 계	5	14									1	20	0.6	
	기록관리학	11	6	4	1						1		23	0.7	
	총 계	1,108	916	541	360	158	90	52	14	12	5	14	3,270	100.0	
	비율 (%)	33.9	28.0	16.5	11.0	4.8	2.8	1.6	0.4	0.4	0.2	0.4	100.0		

정보 봉사(5.9%), 도서관 운용(5.8%), 도서관 체제(2.5%), 문헌정보학 일반(2.3%) 등의 순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 10편 중 7편 이상이 정보학을 다룬 문헌임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을 인용할 때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전체 학문 영역 중에서 정보학을 다룬 문헌을 가장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연구자들은 평소 자신

의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들에 친숙하고 정통하기 때문에 문헌 인용에 있어서도 그 분야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정보 검색(22.3%), 계량정보학(11.3%), 이용 연구(6.6%), 도서관 자동화(6.1%), 정보 기술(5.2%), 정보 축적(4.9%), 정보학 일반(4.1%), 인터넷(2.6%), 전문가시스템(2.4%), 정보 이론(1.8%), 디지털도서관(1.6%), 컴퓨터네트워크(1.3%) 등의 순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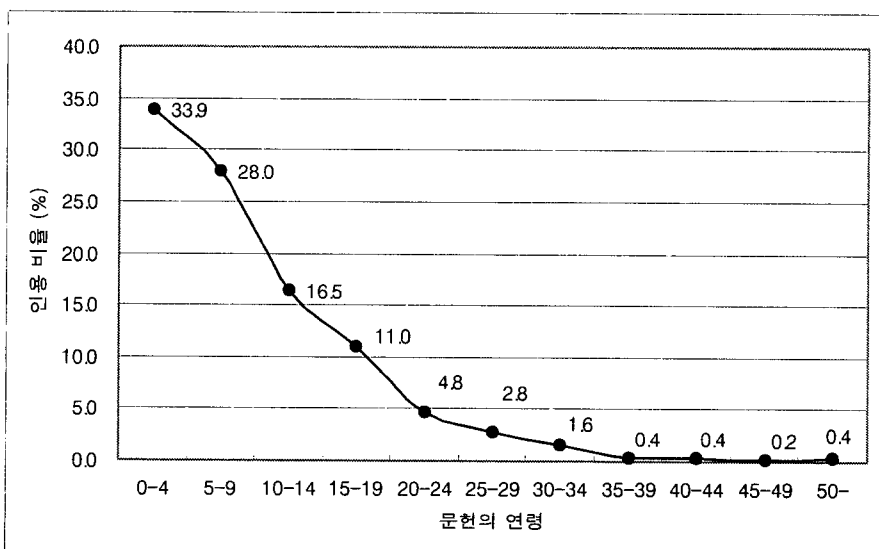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은 문헌정보학의 전체 57개 핵심 주제 중 1/10도 되지 않는 5개 주제(정보 검색, 계량정보학, 이용 연구, 도서관 자동화, 정보 기술)를 다룬 문헌들(51.5%)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3)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인용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은 0-4년(33.9%), 5-9년(28.0%), 10-14년(16.5%), 15-19년(11.0%), 20-24년(4.8%), 25-29년(2.8%), 30-34년(1.6%) 등의 순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10편 중 6편 이상이 간행 된지 10년을 넘지 않은 문헌(61.9%)임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인용할 때 과거 문헌이 아닌 최신 문헌을 가장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4)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가장 주목한 간행 후 10년 이내 인용된 문헌들의 주제는 정보 검색(12.9%), 계량정보학



〈그림 2〉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연령별 추이

(5.5%), 이용 연구(3.6%), 정보 기술(3.5%), 정보 축적(3.4%), 편목(3.2%), 주제 분석, 정보학 일반(각 2.7%), 인터넷(2.5%), 도서관 자동화(2.1%), 장서 개발/관리(2.0%), 전문가시스템(1.9%), 자료의 유형(1.6%), 디지털도서관(1.6%), 참고 봉사(1.3%) 등의 순위이다.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한 최신 정보는 전체 57개의 핵심 주제 중에서도 전기한 15개 주제를 다룬 정보들(50.5%)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5)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간행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문헌들(10.6%)도 인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3. 3 인용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국내 문헌정보학 문헌에 대한 의존도는 15.2%(6,795편 중 1,033편)이고, 외국의 그것은 48.1%이며, 타 학문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36.7%이다.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의존도(63.3%)는 타 학문분

야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연구자들은 평소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주요 문헌들에 친숙하고 정통하여 문헌 인용에 있어서도 그 분야의 문헌이 집중적으로 인용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타 분야 문헌의 인용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용 문헌에 비해 그 비율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 학문분야 인용에 관한 조사는 그것이 어떻게 학문의 경계를 넘어 특정 분야로 원용되는 지에 대한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주제 의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문의 연구 동향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학문 활동 과정에서 타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에 접근하고 인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그것들이 간행 후 몇 년 경과된 문헌이며, 어떤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 동향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302편에 인용된 타 학문분야의 문헌 2,492편을 조사하고 DDC 22판을 적용하여 그 주제 및 문헌의 연령별 분포를 산출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3>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표와 그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포

류(類)/강(綱)/목(目)		문헌의 연령											합 계	비율 (%)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44년	45~49년	50년 이상		
총류	지식/학문 일반	5	3	1	3	1				1			14	0.6
	컴퓨터 과학	755	367	142	46	28	9	3	1	3	4		1,358	54.5
	박물관학	2		1									3	0.1
	신문/인론/저널리즘	10	6		1		1						18	0.7
	소 계	767	373	143	47	28	10	3	1	3	4		1,379	55.3

철학	인식론					1		1	1				3	0.1
	과학적으로 알 수없는 현상	1	1		1								3	0.1
	철학논제/철학과	1		3	2								6	0.2
	심리학	3	9	9	6	5	3	1	1	1	3	1	42	1.7
	논리학	2	2		1								5	0.2
	윤리학	9	2										11	0.4
	소 계	16	14	12	10	6	3	2	2	1	3	1	70	2.8
사회 과학	사회과학 일반	66	46	29	20	12	22	7	10	1		1	214	8.6
	일반 통계									1		1	2	0.1
	정치학/정부	3		1									4	0.2
	경제학	30	14	7	4	1		1	1	1		2	61	2.4
	법 학	17	2	2									21	0.8
	행정학	38	6										44	1.8
	사회복지(문제)	2	1	2				1					6	0.2
	교육학	30	22	7	8								67	2.7
	상업/무역/통신/교통	6	12	1	2	1	1						23	0.9
	소 계	192	103	49	34	14	24	8	12	2	1	3	442	17.7
언어	언어학 일반	12	9	4	4	2							31	1.2
	동양어	13	17	6		1							37	1.5
	영 어		2	2	1								5	0.2
	소 계	25	28	12	5	3							73	2.9
순수 과학	순수과학 일반	1	5	3	5	3	1	1				1	20	0.8
	수 학	17	20	10	9	3	2						61	2.4
	물리학		1	2									3	0.1
	화 학	1	2										3	0.1
	생명과학/생물학	1		3									4	0.2
	동물학	1				1		1	1				4	0.2
	소 계	21	28	18	14	7	3	2	1			1	95	3.8
기술 과학	기술과학 일반	5	1				1						7	0.3
	의 학	10	8	2	1	1							22	0.9
	공학/공업 일반	16	10	5	3					1			35	1.4
	가정학		1										1	0.0
	경영/관련 분야	150	97	43	19	9	4	6	3		1		332	13.3
	화학공학	1											1	0.0
	건축공학	2	2	2									6	0.2
소 계	184	119	52	23	10	5	6	3	1	1		404	16.2	
예술	예술 일반					1		1	1		1		4	0.2
	음악	1	1	1	2								5	0.2
	오락/스포츠	3											3	0.1
	소 계	4	1	1	2	1		1	1		1		12	0.5
문학	문학일반	6	3	1									10	0.4
	소 계	6	3	1									10	0.4
역사	역사 일반					1							1	0.0
	아시아 역사	2	3	1									6	0.2
	소 계	2	3	1		1							7	0.3
합 계		1,217	672	289	135	70	45	22	20	7	10	5	2,492	100.0
비율(%)		48.8	27.0	11.6	5.4	2.8	1.8	0.9	0.8	0.3	0.4	0.2	100.0	

(1)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타 학문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학문분야를 거의 가리지 않고 인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류별(類別) 분포는 총류(55.3%), 사회 과학(17.7%), 기술 과학(16.2%), 순수 과학(3.8%), 언어(2.9%), 철학(2.8%), 예술(0.5%), 문학(0.4%), 역사(0.3%)의 순위이다.

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총류에 해당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의존도와 나머지 학문분야 의존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정보학의 인접 영역인 총류에 대한 의존도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학의 학제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인용한 타 학문분야는 컴퓨터 과학(54.5%), 경영/관련분야(13.3%), 사회과학 일반(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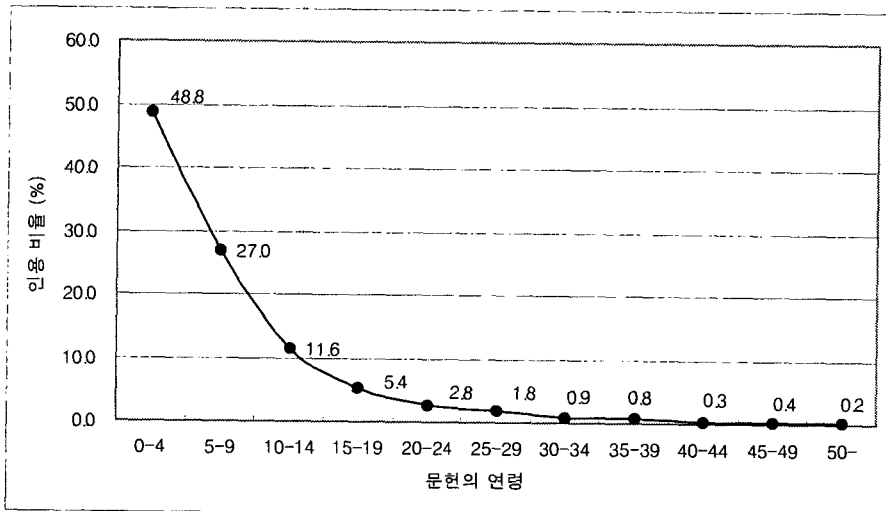
교육학(2.7%), 경제학, 수학(각 2.4%), 행정학(1.8%), 심리학(1.7%) 등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인용한 타 학문분야는 모두 41개의 강(剛)인데, 컴퓨터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40개(45.5%)의 강중에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인용한 강은 전술한 7개(32.9%)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타 학문분야를 원용할 경우 컴퓨터 과학을 비롯한 몇몇 학문분야의 문헌만을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중에서 컴퓨터 과학의 인용 비율을 사공철, 박성민(1994)은 62.8%, 서은경(1997)은 59.8%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컴퓨터 과학의 인용 비율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컴퓨터 과학



〈그림 3〉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연령별 추이

분야의 주제 의존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컴퓨터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3)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연령은 0-4년(48.8%), 5-9년(27.0%), 10-14년(11.6%), 15-19년(5.4%), 20-24년(2.8%), 25-29년(1.8%) 등의 순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 10편 중 5편 정도는 간행 후 5년이 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타 학문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과거 문헌이 아닌 최신 문헌을 더욱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4)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20년간 가장 주목한 간행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타 학문분야 문헌은 컴퓨터 과학(30.3%), 경영/관련분야(6.0%), 사회과학 일반(2.6%), 행정학(1.5%), 경제학, 교육학(각 1.2%) 등의 순위이다. 즉, 전체 41개 강(剛) 중에서 전기한 6개 강을 다룬 문헌들(42.9%)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타 학문분야를 원용할 경우 컴퓨터 과학을 비롯한 몇몇 학문분야만을 다룬 최신 문헌을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20년간 조사 대상 학술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와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및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및 연령별 분포를 각각 조사, 분석하였다. 밝혀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은 주제 및 간행 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간행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정보학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논문의 절반 이상(51.9%)은 4개의 주제(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 인터넷, 정보 기술)에 국한되어 있고, 하위 주제 또한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일부 주제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생산성은 과거 15년간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학 문헌의 생산량은 10년 혹은 15년을 주기로 2배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Price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최근 5년간 주목한 주제는 13개의 정보학 핵심 주제 가운데 35.8%에 해당되는 5개 주제(인터넷, 정보 검색, 전문가시스템, 정보 기술, 이용 연구)에 불과하다.

(3) 이러한 연구 동향은 정보화라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 과정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4)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외국의 문헌정보학 정보를 이용할 때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중 정보학 정보(70.5%)를 가장 선호하며, 아울러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57개 핵심 주제 중 1/10에 불과한 5개의 주제(정보 검색, 계량정보학, 이용 연구, 도서관 자동화, 정보 기술)를 다룬 문헌들(51.5%)에 주목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은 평소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의 주요 문헌들에 친숙하고 정통하기 때문에 문헌 인용에 있어서도 연구자 자신의 관심분야를 다룬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5)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을 인용할 때 간행된 지 10년을 넘지 않은 최신 문헌(61.9%)을 선호하며, 그 주제는 전체 57개 핵심 주제 가운데 15개이고, 이에 해당하는 문헌은 전체의 50.5%

이다.

(6)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타 학문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학문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며, 정보학의 인접 주제인 총류(55.3%)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높으므로 정보학의 학제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타 학문분야의 정보를 원용할 경우, 컴퓨터 과학을 비롯한 8개 학문분야(87.4%)의 정보를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7)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 10편 중 5편 정도는 간행 후 5년이 넘지 않는 최신 문헌(48.8%)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문헌은 전체 41개 강 중에서 6개 강(컴퓨터 과학, 경영/관련분야, 사회과학 일반,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을 다룬 문헌들(42.9%)이다. 즉,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은 최근 20년간 타 학문분야의 정보를 원용할 경우 컴퓨터 과학을 비롯한 몇몇 학문분야만을 다룬 최신 정보를 선호하는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구본영. 2003. 『문헌정보학 입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사공철, 박성민. 1994. 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125-160.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4(1): 259-291.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8-310.
- 이수상. 1998.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 정동열, 김성진. 2003. 문헌정보학연구의 이론 활용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 165-198.
-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최달현, 이영자. 1988. 정보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이론적 흐름. 『사회과학연구(경북대학교)』, 4: 99-116.
- 최희곤. 2000. 『한국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Feehan, P. E. W. L. II Gragg, W. N. Havener, D. D. Kester. 1987.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3): 173-186.
- Harter, Stephen P. and Patricia A. Hooten. 1992. "Information Science and Scientists: JASIS, 1972-199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3(9): 583-593.
- Järvelin, K. and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Kajberg, Leif. 1996. "A Content analysi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erial Literature Published in Denmark, 1957-198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 25-52.
- Kumpulainen, Sisko. 199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1975: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Libri*, 41(1): 59-76.
- Price, Derek John de Solla. 1963.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ubin, Richard E. 2000. *Found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 Inc.
- Yontar, Aysel and Mesut Yalvac. 2000. "Proble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Turkey: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1952-1994." *IFLA Journal*, 26(1): 39-51.